



갈릴리 바다(호수)는 어떤 곳?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초반에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이다. 갈릴리에는 '갈릴리 바다(호수)'가 있는데, 남북이 약 21km, 동서 너비가 약 12km, 깊이 50~60m, 총 면적이 대략 165km² 정도 되는 큰 호수이다.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하는데, '긴네렛' (민 34 : 11), '게네사렛' (눅 5 : 1), '디베랴' (요 6 : 1, 21 : 1) 등이 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등의 배경이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이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도 갈릴리 바다였다.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여행을 가 보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식당들에 꼭 등장하는 메뉴가 있다. 바로 '베드로 물고기'이다. 주로 감자와 곁들여 먹는 이 튀긴 생선 요리의 이름은 성경 말씀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여 종의 물고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3종류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흔히 잡히는 '갈릴리 역돔'을 베드로 물고기라고 부른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 : " 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대답 :

